



지면안내

보도 "2학기는 빛 없이 다니고 싶어요" 02

사람사  
컬러즈의 김윤희  
강사를 만나다  
"오직 나만의 색을  
찾아서"



학술 착한 미소를 띤 악마,  
화이트칼라 소시오패스 06

문화 10분 안에 웹드라마 07



동정란

공부근(융복합교양교육과정) 교수  
공 교수는 지난 7월 31일에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전략전문가로 위촉됐다. 8월 6  
일에 '2015년 민간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  
기관' 인증심사위원으로 위촉, 8월 19일부터  
8월 21일에 '제20회 경영지도사 국가자  
격시험' 선정출제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정숙(한국어문학부) 교수  
이 교수는 지난 5월 30일 토요일 서울대  
두산인문관에서 열린 제47회 한국현대소  
설학회와 황순원학회 공동 전국학술대회  
'황순원 탄생 100주년, 황순원 문학의 재조  
명'에서 '황순원 문학의 시대사적 의미' 라  
는 제목으로 기조발제를 했다.

정치화(융복합교양교육과정) 교수  
정 교수는 지난 8월 19일부터 21일 까지 한  
국발명진흥회, 특허청 주관, 문경 서울대의  
과대학 인재원에서 개최한 전국대학교수  
를 위한 T3교육 마스터과정(70명의 전국대  
학교수참여)에서 기술가치평가로 강의하  
였다.

사령

- 퇴임 편집국장 한재원 (행정 4)
- 임 편집국장 한지선 (매디 2)  
부편집국장 임태미 (사각영상 2)  
부장기자 신동석 (무역 3)  
오그림 (무역 4)  
현정은 (무역 3)
- 정기자 김민정 (한국어문 1)  
박종수 (부동산 1)
- 면 부장기자 노유진 (경영 2)  
최혜정 (의매 2)
- 정기자 오혜진 (한국어문 2)

##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진행돼

지난 8월 20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2014학  
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진행됐다. 학위수여  
식은 개식사를 시작으로 학위증서 및 상장  
수여와 총장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사 9명, 석사 84명, 학부 338명, 디  
자인아트평생교육원 46명으로 총 537명이  
학위를 받았다.

또한 이번 학위수여식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학원에서 ▲최우수논문상 6명 ▲성  
적우수상 17명 ▲공로상 20명 ▲대학원 총  
동문회장상 2명이 수상했다. 학부에서는 ▲  
성적우수상 6명 ▲학과추천 공로대상자 30  
명 ▲특별 공로상 5명이 수상했고, 디자인  
아트 평생교육원에서는 ▲학사학위과정 성

적최우수상 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신일 총장은 "여러분은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소중한 학위과정을 성공적으로 마  
치고 오늘 영광스러운 학위를 받게 되었다.  
앞으로 여러분은 학위과정을 통해 배우고느  
킨 전문지식과 학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외  
발전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

다"고 전했다. 이어 강 총장은 "앞으로 나  
가게 될 사회는 대학보다도 몇 배, 몇 십 배  
치열한 경쟁과 무한한 노력을 요구할 것이  
다. 여러분에게 펼쳐진 새로운 미래에 과감  
히 도전하고 응전하는 진취적인 용기와 끊임  
없는 열정만이 여러분을 21세기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격려했다.

박미성(행정 2) 학생은 "이번에 졸업하  
게 되어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이 개  
운하고 후련하다. 졸업은 학교를 떠나는 것  
이지만 사회인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인 만큼 뜻깊은 의미인 것 같다"며 졸업 소  
감을 전했다.

<취재부>

## 수강포기신청, 온라인으로 더욱 쉽고 간편해져

이번 학기부터 수강포기신청이 오프라인  
에서 온라인으로 바뀐다. 간편해진 대신 기  
간은 2주에서 1주일로 줄었다. 수강포기신  
청 가능인원은 전공 10명, 교양 20명으로 기  
존과 같으며 오프라인 수강포기신청은 폐  
지됐다.  
기존의 수강포기신청은 오프라인으로 담  
당 교수나 학과장을 만나, 수강포기원에 서  
명 또는 도장을 받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  
었다. 담당 교수가 시간 강사일 경우에는 만

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포기원을 제출한  
후에도 수강포기가 처리가 되었는지 종합  
정보시스템에서 개인 시간표조회를 확인해  
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기존의 수강포기신청은 비효율적이라는 지  
적을 받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사지원팀  
에서는 수강포기신청 웹 프로그램을 개발  
해 오는 2학기부터 한성대학교 종합정보시  
스템에서 실행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종합정보시스템의 '교무' 란의 '수강포기신  
청' 항목으로 들어가 수강포기를 하는 시스  
템이며 수강포기 신청 내용과 승인 여부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연태(학사지원팀) 과장은 "학생들의 불  
편함을 줄이고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  
해 프로그램 개발을 기획했다"며 "이를 바  
탕으로 학생들이 좀 더 편하게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취재부>

HANSUNG UNIVERSITY						
학위 기본 정보						
학부(과)	한국어문학부	순번	과목코드	과목명	대수구분	분반
학년	1학년	1	CS10005	1인용 심화한	필수	2
이름	이정숙	2	KOR0007	고전문학사	필수	3
이름	이정숙	3	CS10006	입자입자	필수	3
이름	이정숙	4	CS10009	발과 발	필수	2
이름	이정숙	5	CS10177	발의 이론과 실제	필수	2
이름	이정숙	6	RE00000	새로운 문	필수	2
이름	이정숙	7	CS10005	새로운 문	필수	2
이름	이정숙	8	RE00212	영어커뮤니케이션	필수	1
이름	이정숙	9	RE00222	영어커뮤니케이션	필수	1
이름	이정숙	10	KOR0002	한국어학	필수	3

## 2학기부터 종합관 골조공사 진행돼



작년 8월부터 진행된 종합관 신축공사가  
현재 본관동 2층 골조공사 및 주차장 골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주차장 골조 공사  
의 경우 9월 중으로 완료된다. 2학기 개강  
전 완료예정이었던 주차장 골조공사가 기  
상사정으로 인해 9월 중순으로 진행이 늦춰  
졌지만, 완공일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 전  
했다.  
향후 골조공사는 지상 12층까지 내년 2월  
에 완료, 이후 2016년 7월까지 마감공사를  
거쳐 8월 6일 완공할 예정이다.

<취재부>

## 2015학년도 2학기 학사 협의회 열려

지난 8월 19일 본교 미래관 DL에  
서 2015학년도 2학기 학사협의회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이종훈 이  
사장과 강신일 총장을 비롯한 많은  
교수들이 자리했다. 행사는 등록, 우  
수교원 포상, 부처별 업무보고, 교육  
부 대학구조개혁 평가자료 자체평가  
논의, 정년퇴임식 순으로 진행됐다.

## 발행일정

발행호	발행일
505호(개강호)	9월 1일 (화)
506호	9월 14일 (월)
507호	10월 5일 (월)
508호	10월 19일 (월)
509호	11월 16일 (월)
510호	11월 30일 (월)

## 새코너 소개

- <사회면> 일만한 법  
대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겪을만한 사례들  
을 다루는 법을 코너
- <사람 사면> 한성미식회  
한성대학교 근처의 맛집을 주제로 한 고품  
격 토크 코너
- <학술면> 서원재 교수의 락커룸  
스포츠를 사회와 접목시켜 새로운 시선으  
로 바라보는 코너
- <문화면> 웹툰 밑줄긋다  
말풍선 속 대사에 밑줄을 그어 간직하고  
싶은 웹툰을 소개하는 컬럼

# "2학기는 빛 없이 다니고 싶어요"

## 본교 재학생 2014학년 1학기 기준 평균 348만원 학자금 대출받아

"대출을 벌써 2천만 원 가까이 받았어요. 이자도 매달 불어나는데, 4학기나 더 대출을 받고 다닐 생각을 하니..."

A양은 2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본교 2학년인 A양은 지금까지 총 4번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소득분위가 9분위로 국가장학금도 받지 못해 늘어난 빛은 그대로 부담이 되었다.

졸업생 B군은 재학 중 8학기 모두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아직 취업을 준비 중인 B군은 학자금 대출의 원금 및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를 해 신용유지자(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이처럼 대학생들이 고액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취업난으로 빚더미에 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청년 실업자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 신용유지자를 위한 '청년 실신'이란 말도 나오는 요즘, 학자금대출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의 통계에 의하면 2014년 4월 기준 학자금 대출로 대학생 148만 명이 12조 3천 억 원의 빚을 지고 있고, 학생 1인당 빚은 2010년 525만원에서 2014년 704만원으로 34% 증가했다.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채무액은 1,465만 원

이다. 이 중 학자금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63.8%(935만 원)이다.

그렇다면 본교 학생들은 얼마나 대출을 받을까? 대학알리미를 통해 알아본 결과, 2014년 1학기 일반 학자금 대출(학자금+생활비)과 든든 학자금 대출(학자금+생활비)을 더한 뒤 학생 수로 나누자 1인당 평균 348만 원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기준으로 8학기 내내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면 2,784만 원의 빚이 생긴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쉽게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이를 갚는 것은 쉽지 않다. 일반 학자금 대출은 대출 이후 바로 이자가 발생하고, 졸업 이후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졸업 후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매달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해지자 2009년 든든 학자금 대출제도가 마련되었다. 든든 학자금은 취업 후 기준소득(4인 가족 최저생계비, 월 155만원)을 초과하여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이 시작된다.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고, 졸업 후에도 소득이 없으면 상환이 유예된다.

그러나 이조차도 2014년 12월 말 현재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졸업생은 68.3%(18.1만 명)로, 졸업생 3명 중 1명이 상환을 시작하지 못했다. 대학교육연구소의 임은희 연구원은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급여가 열악해 졸업생들이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안 된다"며 "청년 고용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교연의 자료에 따르면 6개 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지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4년 4만 365명에 달했다. 특히 이들 5명 중 1명은 그 빛이 천만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정부가 나서서 2014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학자금 대출의 채무조정을 실시하여 이자 전액과 대출원금의 30~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신용유지자의 수가 감소되었지만, 금융관계자는 이런 유예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각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학자금 대출의 미상환으로 막대한 부실과 신용유지자 양산이 우려된다"며 "든든 학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 대학을 보다 제한하고, 지원 대상 대학생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은희 연구원은 "등록금은 부실대학이나 서울 사립대나 문제다. 높은 등록금은 낮추려 하지 않고, 학자금 대출제도를 바꿔가며 학생들에게 대출을 부추기거나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지원 제한대학은 학교운영방식에 대한 결과인데, 그 결과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제한해 학생들에게 책임과 부담을 떠안게 하는 것"이라며 원인과 처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취재부)

### 정부 학자금 대출 현황

(단위: 만명, 조원)

구분	일반상환 학자금		든든 학자금		합계		1인당 대출액 (백만원)
	대출자수	대출액	대출자수	대출액	대출자수	대출액	
2010년	53	2,9	17	0,8	70	3,7	525
2011년	65	4,1	31	1,8	95	5,9	616
2012년	65	4,3	53	3,1	118	7,4	628
2013년	65	4,3	71	4,5	136	8,8	651
2014년	67	5,1	85	5,6	152	10,7	704

주1) 학기 졸업자 합한 인원 / 주2) 대출 졸업자 중에서 든든 학자금 대출자 현황 / 주3) 상환 위 대출자 중 년 월말 현재 상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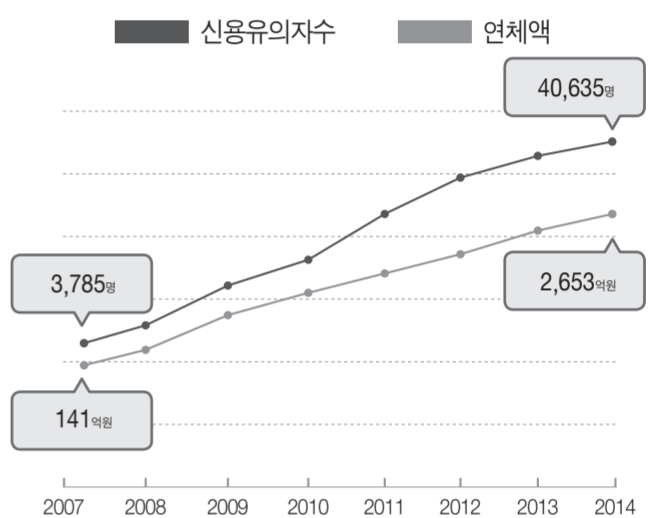
### 든든 학자금 대출자 졸업 이후 상환 현황

단위: 명, 억원, %

구분	대출		상환		상환율	
	대출자수	대출액	상환자수	대출액	상환자수	대출액
2010학년도 졸업 (졸업후 4년 경과)	21,171	1,007	12,791	302	60,4	30,0
2011학년도 졸업 (졸업후 3년 경과)	49,373	3,609	35,945	904	72,8	25,0
2012학년도 졸업 (졸업후 2년 경과)	80,864	5,896	52,724	1,240	65,2	21,0
2013학년도 졸업 (졸업후 1년 경과)	113,182	9,858	79,661	1,798	70,0	18,2
합계	265,185	20,370	181,121	4,244	68,3	20,8

※2014년 4월말 기준  
주1)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정부보증부대출 대상 / 주2) 연체액은 신용유지자 부실채무 등록 금액을 의미함  
주3) 각 연도 연말 기준

### 학자금대출 신용유지자 현황



## 제6회 한성대학교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지난 7월 6일 시작된 제6회 한성대학교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8월 26일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창업 지원팀의 주최로 매년 열리는 이 대회는 서류접수후 신청자를 받고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19팀이 참가해,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이 수상했다.

발표한 '링거링거링'팀이 수상했다. '링거링거링'팀은 팀장 신동리(정통4)를 중심으로 고통현(정통4), 권연준(정통4), 박은지(정통4), 박성범(정통3)으로 구성되었다. 신동리 학생은 "병원에 입원해 링거를 맞았을 때 불편했던 기억이 떠올라 아이টে를 구성하게 됐다"며 "다음 달에 아이টে를 특

허로 등록할 예정이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링거링거링팀은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8월 26일-27일 양일간 열린 'K-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코엑스에서 전시를 하기도 했다.

(취재부)



## 제13회 한성인 해외문화탐방, "단순 기행이 아닌 뜻 깊은 경험이 됐으면"

지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한성인 해외문화탐방(이하 문화탐방)이 중국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문화탐방은 백두산 북파, 서파 코스와 고구려 유적지, 압록강을 답사하는 4박 5일의 일정으로 본교 재학생 42명이 참가했다.

학술복지위원회가 주관하는 백두산 문화 탐방은 동북공정으로 영토분쟁에 놓인 민족 고유의 영산 백두산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이번 문화 탐방을 계획한 신동귀(학생지원팀)과장은 "학생들에게 이번 탐방이 단순 기행이 아닌, 미래의 통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또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만큼 내년도도 많은 학생이 참여했

면 한다"며 참여도 독려했다. 한성인 해외문화탐방은 지난 2003년 금강산 문화탐방을 시작으로 13년간 매해 진행됐다.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행사는 학교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기 때문

에 학생들은 비교적 부담 없이 문화 탐방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자기소개서와 글짓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다. 한성인 해외문화탐방은 내년 여름에도 진행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성대학교 홈페이지 탐방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자기소개서와 글짓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다. 한성인 해외문화탐방은

(취재부)



## "학술정보관에서 지성인을 찾습니다"

### [ 일정 ]

- 응시 자격 : 본교 재학생 (학부생)
- 신청 기간 : 2015. 7. 13. (월) ~ 10. 31. (금) (신청 :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 대회 일시 : 2015. 11. 19. (목) 오후 4시
- 대회 장소 : 학술정보관 제2열람실 (4F)
- 수상 발표 : 2015. 11. 26. (목)

### [ 시상 ]

- 대상 1명 : 상장 및 부상 (50만원 상당)
- 최우수상 1명 : 상장 및 부상 (30만원 상당)
- 우수상 2명 : 상장 및 부상 (20만원 상당)
- 장려상 3명 : 상장 및 부상 (10만원 상당)
- ※ 시상별 수상자 인원 조정될 수 있음
-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 제5회 독서경진대회

독서력 향상 및 창의적이며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5회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세부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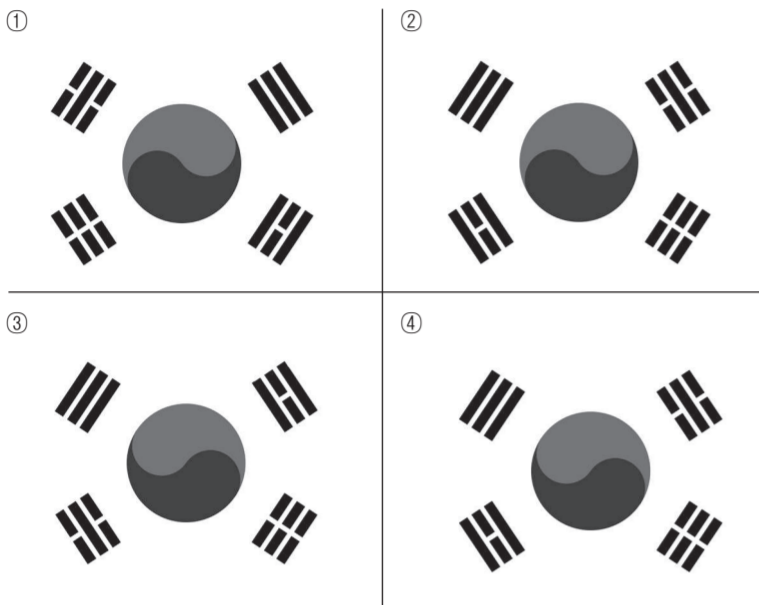
- 출제 범위 : 한성 권장도서 70선 중 「지정도서 4선」에서 출제
- 문제 유형 : 간략형 주관식과 객관식 (총 44문제)
- 지정도서 4선

NO	분야	서명	저자
1	문학	칼의 노래	김 훈
2	철학 · 사상 · 역사	한국사를 바꾼 14가지 거짓과 진실	KBS 역사추적팀
3	정치 · 경제 · 사회 · 예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히게	미겔 앙헬 카포토니코
4	과학	새빨간 거짓말, 통계	대럴 허프

### ■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참조

- 「한성 권장도서 70선」 목록
- 문제 유형 예시, 시상 일정 등의 기타 상세 사항

# 광복 71주년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다음 4개의 태극기 사진 중 태극기의 올바른 문양은 어떤 것인지 선택해 보자. 정답은 4번이다. 당신은 몇 번 태극기를 선택했나? 혹시 정답을 맞지 못한 건 아닌가?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 따르면 대학생 10명중 4명은 태극기의 정확한 문양을 구분하지 못했다.

**광복 70주년, 행사일 뿐 의미를 되짚거나 고찰할 틈은 없어**  
올해가 광복 70주년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최근 미디어리서치가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소재한 대학 신입생에게 “올해가 광복 몇 주년인지 알고 있는가?”라고 물어본 결과 절반에 가까운 44%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난 3월 한국 갤럽이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광복 연도가 1945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20대는 49%로 3·40대는 33%, 50대는 39%였다. 하지만 이와 같이 역사의 이해가 아닌 단순 암기에 의한 지식을 묻는 질문으로 20대의 역사지식수준을 일반화

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고 20대의 절반정도가 우리나라 역사 중 주요사건들의 시기를 모른다는 것 또한 정상적이라 보기에 어렵다. 또한 위 설문조사 외에도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매체에서 광복에 대한 각종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단순히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여줄 뿐 광복의 의미를 되짚거나 고찰할 수 있는 틈은 마련되지 않았다.

**정말 문제없어?**  
지난 8월 15일 광복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아이돌 그룹 블락비의 멤버 피오가 일본어로 ‘문제없다(問題ない)’는 글귀가 쓰인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았다. ‘문제없다(問題ない)’라는 글귀는 일본 우익단체들이 시위할 때 쓰는 글귀라고 한다. ‘병소에 입어도 못매를 맞을만한데 광복절에 입고 나왔으니 비난받아 마땅하다’, ‘광복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저런 행동을 나올 수 없었다’는 누리꾼들의 의견. 문제의 아이돌 멤버가 글귀의 의미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광복’이 누구로부터 되찾은 ‘빛’인지 ‘머리’가 아닌 ‘기슴’으로 알고 있다면 일본어가 적힌 의상은 입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역사를 잘 모르는 한 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는 정말 ‘광복’의 의미를 ‘기슴 깊이’ 새기고 있을까. 일제 강점기가 내 기억에는 없는

교과서 몇 페이지에 나온 이야기인데다가 심지어 지금은 자기 앞가림만 하기 에도 바쁜 시절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진 않은가.

**82명의 살아있는 교과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있는(2015년 8월 15일 기준) 독립유공자 14,197명 중 애국지사 약 82명이 생존하고 있다. 현존하는 애국지사 82명 중 대부분이 고령과 치매 등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그중 김우전 애국지사는 94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계획한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전망’이라는 명사초청 특강에서 자신의 독립운동시절을 발표하였다. 94세에 광복의 역사를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는 “올해가 광복 몇 주년인지조차 모르는 대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더욱 분발해서 광복의 발자취를 기록했다. 내 글이 후세에 본보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지금은 현존하고 있는 독립유공자들이 언제까지 역사의 증인으로서는 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광복 60주년을 얼마나 뜨거웠을까. 70주년이라는 거창한 숫자에 집착해 잠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닐까. 다음 71주년 우리는 얼마나 광복을 기억하고 있을까.

〈사회부〉

## 알아라

###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없는 까닭

숨진 사람은 피해자는 있지만 처벌받은 범인은 없다. 수사기관과 사법 절차를 밟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27가지가 떠오른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배경이 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이태원 햄버거 살인사건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1991년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살해된 미제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끝났다. 19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 청년이 칼에 찔려 참혹하게 살해당했다. 당시 화장실 안에는 친구 사이인 미국 교포 2명이 있었다. 그렇다면 둘 중 한 명이 범인이거나, 둘 다 범인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범인은 끝내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또 하나의 사건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바로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이다. 1998년 10월 당시 대학생이던 정 아무개양은 고속도로 상에서 트럭에 치여 숨졌다. 유족들이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처리했다.

15년이 흐른 2013년에서야 검찰은 스리랑카인 K씨를 특수강도 강간범으로 지목하고 법정에 세웠다. 당시 K씨가 동료 2명과 함께 정양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소지품을 빼앗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은 2014년 1심에 이어, 지난 8월 2심에서도 무죄로 끝났다. K씨의 범행을 뒷받침할 만한 증언이 나왔지만 법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고 판결했다. 그래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나오는 걸까. 경찰의 초동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는다.

누구나 범인을 비판하고 또 사법제도를 비판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른다. 왜 그럴까. 우선 제도교육의 탓이 크다. 학교에서 법을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다. 게다가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체득하지 못했다. 법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기 일쑤다.

그러면 왜 법을 알아야 하느냐고? 어렵게 얘기할 것 없다.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다. 법이란 권리의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게 함의이다.

연재 첫 회이니 단순한 질문 하나로 시작하자. 앞서 소개한 K씨는 피고일까, 피고인일까. 아니면 피의자일까. 언론에서도 혼동에서 쓰는 바람에 자주 헷갈린다.

먼저 피고는 ‘원고’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원고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뜻한다. 예를 들어 벌린 돈을 받기 위해, 또는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반대로 그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 피고가 된다. 원고와 피고는 사적인 권리와 관계되는 민사소송의 등장인물일 뿐이다. 때에 따라서는 국가도 피고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수사기관의 불법금이나 가혹행위,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개인이 피해를 본 경우 피고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도 종종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등장하는 단어다. 형사재판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된다. 즉 살인, 강도, 강간 등 형법을 어겼을 때 국가가 직접 나서서 형법권을 행사한다. 개인의 청구로 시작되는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이 이뤄지려면 반드시 검사가 법원에 재판 신청을 해야 한다. 이것을 기소(공소제기)라고 한다. 형사사건의 당사자는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와 이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피고인이 된다. 피고인이란 범죄를 저질러 벌을 받아야 한다고 검사가 기소한 자로 이해하면 되겠다.

강도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하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을 조사한 뒤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피의자)을 집중 수사할 것이다. 그 후 범죄자라고 판단이 서면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 처벌하려 할 테고,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바뀐다.

정리하자면 수사단계에 있으면 피의자, 법원으로 넘어오면 피고인이 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2가지가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묵비권이다. 헌법에도 나와 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모든 국민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형사 재판에서 자신의 결백을 밝혀 무죄 판결을 받는 사람은 피고가 아닌 ‘피고인’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

김용국(법원공무원, 법률칼럼니스트)

## “그래도 알려야지. 우리 싸우고 있다고”

광복 70주년에 맞춰 개봉한 영화 <안숙선>이 흥행하면서 남성 못지않았던 여성독립투사들의 삶이 재조명되고 있다. 배우 전지현이 맡은 가상의 인물 ‘안숙선’은 남성독립투사들 사이에서 총을 든 저격수로 등장한다. 현실에서도 ‘안숙선’과 비슷한 인물이 있었을까? 여성독립운동가 ‘남자현’(1872-1933) 지사가 바로 그 저격수 ‘안숙선’의 실제 모델이다. 왜 이제야 그 이름을 알게 되었을까.

남성 항일 투사들 못지않게 항일 투사로서 적극적으로 전투를 수행하던 여성들. 그런데 1만 3천 명이 넘는 남성 독립유공자들이 서훈을 받는 동안, 여성은 고작 266명(2015년 8월 15일 기준)만이 그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역사교과서에서도 ‘유관순’만이 거론되는 실정이다.

3.1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 ‘유관순’을 제외하고 생각나는 여성독립운동가가 있는가? 아마 잘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여성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조차 역사에서 잊힐 위기다. 보존교육연구원의 ‘중등 역사교과서 국가유공자공헌 내용 분석’에 따르면 중·고교 역사교과서 17종 중 유관순의 공헌에 관하여 서술한 교과서는 7종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관순이 아닌 다른 여성독립운동가가 소개된 교과서 역시 2종뿐이었다.

본문에 언급된 유관순 열사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유관순은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유관순을 비롯하여, ‘유관순처럼’, ‘유관순과 같은’ 표현으로 중요한 독립 운동가의 핵심으로 서술한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서술 방식을 사용하였다. 주도적으로 3.1 운동을 준비하고 참여한 공헌 내용은 부실하게 다뤄졌다. 연구진으로서 보고서 제작에 참여했던 박임희 선생(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은 “직접 독립투쟁에 참여했던 여성 독립투사들과 남성 독립운동가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여성 독립 운동가들에 관한 내용이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소개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심옥주 소장은 여성 독립 운동가들이 조명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은 한국의 여성상이라고 하면 단아하고 정숙하고 신사임당 같은 여성상에 익숙해져있다. 하지만 여성 독립 운동가들은 그렇지 않았다. 목숨을 걸고 만세를 부르려고 뛰쳐나왔고 총을 들고 적진에 서있었고 공군이 되려고 항공학교에 다니기도 하였다. 즉 단아함과는 거리가 먼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여성들이었다.” 이어 심옥주 소장은 “국채보상운동의 시작과 지역마다 일어난 3.1운동의 시발점은 대부분 여성과 여학생들이었다”면서 이들에 대한 자료는 ‘숨겨진 보물’이고 이를 끄집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숙선’이라는 캐릭터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가상의 여성 독립 운동가이지만 영화 속에서 강렬한 독립



▲ 여성 항일투사 남자현 선생(1872-1933)

운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역사 속 ‘안숙선’에 버금가는 실존 여성 독립 운동가들은 막상 국가와 사회의 조명에서 거의 잊혀지고 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광복 70년간 여성 독립 운동가들은 외면당해 왔다. 순국

선열, 애국지사의 발자취를 기억해야 할 우리 세대. 나라를 위해 치열하게 투쟁해온 그 항일 정신은 남녀가 다르지 않았음을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회부〉

한성대학교 학생상담센터 HANSUNG UNIVERSITY STUDENT COUNSELING CENTER

## 2015년도 2학기 학생상담센터 프로그램

### “내 안의 나 making”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 심리 및 정서적 갈등 해결을 통한 자존감 향상 및 삶의 행복감 증진
- 9월 11일 ~ 10월 2일 (매주 금요일) 2시 ~ 4시

### “꿈을 향한 도움닫기” 프레디져 진로설계 프로그램

- 지금-여기의 흥미로부터 출발하는 진로 설정
- 9월 17일 ~ 10월 1일 (매주 목요일) 3시 ~ 5시

### 발표불안 감소 집단 프로그램

- 피해왔던 발표 불안의 극복을 위한 집단상담
- 9월 21일 ~ 9월 23일 (3일간) 5시 ~ 8시

\*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마감 됩니다.

\* 이수 시 수료증 제공됩니다.

신청문의 02)760-4171/5813, 미래관 지하1층 학생상담센터

# 학군사관후보생의 뜨겁고 열정적인 여름



교단에서

민달준 중령  
(학군단장)

2015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훌거운 마음도 잠시, 여름이 찾아오면서 한성대학교 학군단은 하계 입영훈련 준비에 분주해집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체조를 하고, 끝없는 성복전을 달리며 강인한 학군사관후보생이 되기 위해 여름을 시작합니다. 한성대학교 ROTC 학군사관후보생들은 올 여름에도 충북 괴산의 학생군사학교에서 하계 입영훈련을 실시하였고, 성공적으로 수료했습니다. 2013학년 한성대학교 ROTC 55기 후보생들은 기본적 전투수행능력 구비와 더불어 한 층 성숙된 군인이 되고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화생방전을 체험할 수 있는 화생방훈련, 전투원의 전투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 전투기술과 수류탄 훈련, 응급상황 발생시 전투력을 보존할 수 있는 구급법, 특등사수가 되기 위해 시행한 개인화기 사격 등 그들은 정예 장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동기들과 절차타마(切磋琢磨)하여 낙오

자 없이 수료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성대학교 ROTC의 전통이며 이들이 바로 대학교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는 것을 저도 깊이 느꼈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대한민국 정예 육군 장교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2012학년 한성대학교 ROTC 54기 후보생들은 더욱 심오하고 다양한 하계훈련에 임했습니다. 부대 지휘를 체득하고 적용해 볼 수 있었던 분대전투, 조국의 산하를 지도와 현장에서 느끼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독도법, 이제 숙련된 사격술을 검증할 수 있는 개인화기 사격 등을 통하여 한층 성숙한 장교 후보생의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특히, 분대전투 훈련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실제 전투하중과 동일한 군장류를 가지고 극한의 전투상황을 체험하고 극복할 수 있었던 귀중한 훈련이었습니다. ROTC 54기 후보생들 또한 우수하게 훈련을 수료하였으며, 대학교

와 학군단의 최고 학년인 4학년의 모습을 공고히 갖추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ROTC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 및 임관하여 각자의 임지에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복무하고 있는 2011학년 ROTC 53기 졸업생에게도 격려와 무운장구(武運長久)를 기원합니다. 이처럼, 한성대학교 ROTC 학군사관후보생의 여름은 뜨겁고 열정으로 가득찬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일어난 북한의 도발 및 긴장상태 초래 등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한치의 긴장도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훈련하고, 국가에 보답하고자 노력하는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고 신독(慎獨)의 자세를 견지하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CENTER형 인재를 육성하는 명문 한성대학교 화이팅! 한성대학교 ROTC 화이팅!

## · 사 설 ·

### 광복 70주년을 맞아

올해는 광복(光復)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70년 전 8월 15일, 우리는 일제의 통치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독립하였다. 그 날은 '암흑'의 세계인 한반도에 다시 '빛'이 비쳐진 뜻 깊은 날이었다.

그래서 올해에는 광복을 기념하기 위해,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다. 상해 임시정부의 청사가 재개관되었고,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에 관한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이동경로를 따라 한국과 중국의 청년들이 자전거 대장정을 실시하였으며, 노령의 독립운동사적지를 돌아보는 시베리아 횡단 대장정 행사도 추진되었다.

1920년대 중후반 독립운동자금이 부족하여 임시정부의 청사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1930년대 초 제대로 된 군대를 갖추지 못하여 윤봉길·이봉창의거와 같은 의열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과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지

금 우리가 누리는 호사(豪奢)는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광복 후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우리 부모의 피와 땀의 결과이다. 이처럼 우리는 선결과 부모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수혜자(受惠者)이다.

그런데 우리는 선조들이 성취한 영광을 기념하며 단지 수혜자로서만 살아야 하는가? '부조리'와 같은 어둠을 없애고, '합리'라는 광명의 사회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는 없는가? 혜택을 받는 사람에서 혜택을 준 사람이 될 수는 없는가?

올해 한성학원은 창설 70주년을 맞이한다. 우리 한성학원의 구성원들도 지나온 역사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는 우리를 과거의 성취에 만족하거나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또 다른 영광을 구현하기 위해, 한성학원 구성원 모두의 각성과 새로운 도전이 절실하게 요망된다.

## · 삼 학 송 ·

### 내일을 위한 시간

영화 <내일을 위한 시간>의 회사 사장은 주인공 '산드라'의 복지를 회사 동료들의 투표로 결정하게 한다. 투표의 선택지는 주인공의 복지와 보너스 투표결과에 대해 직원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 하고, 사장은 회사직원들이 한 결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듯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대학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은 교육부의 대학교구조개혁평가와 대학기관인증평가에서 배점이 높은 항목이다.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대학은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구조개혁평가의 A~E등급 중 하위 D~E등급을 받을 경우 퇴출의 위기에 처한다. 그 결과 대학들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비정년트랙 전임교수'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채용에 대해 '저임금의 계약직 교원을 늘리기 위한 꼼수'라며 지적했다. 하지만 대학들은 이에 대해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고 있는 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정작 교육부는 임금과 처우를 보장

받지 못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채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물론 대학교구조개혁평가에서 전임교원의 보수수준을 반영해 대학 내 전임교수 간 급여차이가 클 경우에 한해 감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미비하다. 게다가 '비정년트랙을 별도로 구분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모면하고 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수는 '전임'이지만 1년 또는 2년마다 재계약하고 동일직급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급여를 받는 등의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저임금·불안정 고용체계가 지속된다면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대학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수들에게 재계약이 아닌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내일(tomorrow)과 신년 및 처우개선을 통해 걱정없이 교육 및 연구를 할 수 있는 내 일(my job)을 보장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교육부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당신은 애국할 것인가 매국할 것인가



기자수첩

박주수 기자  
(부동산 1)

서울 구로구 고척 2동에서 3평 남짓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계시는 한상조 어르신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한상조 어르신의 조부이신 한태석 독립운동가는 항일의병 활동, 사이토 총독과 정무총감 암살 계획을 짜는 등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다. 하지만 한태석 독립지사는 일제감정기 도중 체포되어 8년간 옥고를 치렀고 이와 동시에 한상조 어르신의 집안도 기울기 시작했다. 조부는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인하여 한쪽 팔이 잘렸고 부친은 병 때문에 조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조부도 광복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다. 한상조 어르신은 그 이후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서울로 상경하여 지인의 과수원 일을 시작으로 행사 일을 하거나 병차나 과일, 아이스케기 등을 팔기도 하고 800도가 넘는 열기 앞에서 철강을 제작하는 일을 하는 등의 고된 삶을

살아오셨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다. 독립운동가 본인 혹은 자손 중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은 한상조 어르신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 12일 한국일보에 독립운동가와 그들의 가족들 1,115명에게 생활 실태와 관련한 설문조사가 배포된 기사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독립운동가의 38.4%가 월 개인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손들은 이보다 심각한 독립운동가 자녀의 약 72%, 손자녀의 약 79.2%, 증손자녀의 약 62.2%가 월 개인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라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가 받는 연금을 고려하면 소득수준은 더욱 낮을 것이다. 교육 수준에서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교육 수준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자신의 학력을 초졸이라고 응답한 독립운동가의 자녀는

19.4%이지만 손자녀와 증손자녀는 각각 25.0%와 24.5%로 비율이 증가했다. 또한 중졸이라고 응답한 자녀의 비율은 10.7%에 비해 손자녀는 14.3%, 증손자녀는 15.1%로 증가하였다. 결국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대를 거듭할수록 경제적 빈곤은 심화되고 교육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진다라는 것이다. 독립운동가들은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안위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싸웠다. 그로 인해 누군가는 고문으로 팔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고 누군가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결국 광복은 찾아왔지만, 지금 그들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후손들의 어려움은 현재진행형 혹은 심화되고 있다. 만약 다시 한 번 나라를 빼앗긴다면 당신은 애국하겠는가, 매국하겠는가?

# 제13회 한성인 해외문화탐방을 마치고



낙산에 올라

박승희  
(정시 3)

안녕하세요. 2015년 13회 한성인 해외문화탐방의 단장을 맡았던 박승희입니다. 한성인 해외문화탐방은 2003년 금강산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중국 상해 일대를 탐방하며 많은 한성인이 전문을 넓힐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에 다른 학우분들께서도 이런 기회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셨음 하는 바람에 글을 씁니다. 지난 7월 초에 저희 한성인 해외문화탐방은 친숙하면서도 먼 듯한 존재인 백두산으로 향했습니다. 올해는 통화, 이도 백하, 집안, 단동 일대를 탐방하였는데, 역사책 안에서만 보던 유물들과 지역을 실제로 보고 탐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산대가 덕을 쌓아야만 볼 수 있던 천지도 첫째 날, 둘째 날 모두 어려움 없이 조망 가능하였고, 역사책에서 사진으로만 볼 수 있었던 광개토태왕비와 왕릉, 그리고 장수왕릉(장군총)을 직접보고 설명을 상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탐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를 꼽

으라면 저는 서파를 통해 본 '천지'와 '음식'입니다. 먼저 천지를 꼽은 이유는 물론 가장 대표적인 코스이기도 했지만, 1,400여 개의 계단을 올라 조망했던 천지는 절경이었습니다.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천지의 물은 맑아 보였고, 주변에 풀뿐이지만 넓게 펼쳐져 확 트인 시야와 불어오는 바람 또한 그 절경을 이루는데 한 몫했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입니다. 중국이 워낙 향신료처럼 향이 강한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 탐방지역이 백두산 부근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강한 음식이 많아 문화적 차이를 몸소 느꼈기 때문입니다. 탐방이 끝난 지금은 이런 차이를 느꼈던 것 또한 색다른 추억이었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기행이 다른 때보다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백두산' 때문입니다. 현재 남북의 분단 상황으로 인해 백두산을 중국을 통해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이 탐방에 참여했던 학우들에게 백

두산의 의미와 더 나아가 통일에 대해 재고할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번 문화탐방은 저희에게 역사 속의 유물과 백두산, 다른 나라와의 문화 차이,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대해 생각할 좋은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비록 작년보다 신청자가 많이 늘었지만, 처음 지원하는 분들이 적어 아쉽기도 했습니다. 한성인 문화탐방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다양한 해외봉사나 인턴십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많은 학우 분들이 잘 모르거나 무심결에 지나쳐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이 더 아쉬웠습니다. 작게나마 이 글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문화탐방이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빠듯한 일정동안 별탈없이 끝까지 함께 해주신 학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종이신문을 살리기 위해서



독자칼럼

한재원  
(행정 4)

그것은 비 오는 날 우산을 대신한다. 점심 시간에는 기계가 깔개가 되어 짬뽕 국물로부터 책상을 보호한다. 누군가의 과제를 위해 한 통퉁이씩 사라지기도 한다. 그것은 바로 종이신문, 우리 한성대신문이다. 기사만이 깨알같이 박혀있는 얇은 종이신문의 시대는 끝났다. 좋은 질의 종이, 섬세한 디자인, 참신한 레이아웃, 이목을 끄는 헤드라인으로도 부족하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종이신문의 하락세에 발맞춰 디지털 퍼스트가 등장했다. 디지털 퍼스트는 디지털 콘텐츠를 최우선으로 생산한 후 종이신문에 실릴만한 디지털 기사를 다시 고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언론사들 역시 디지털 퍼스트를 선언하거나 뉴스 콘텐츠 생산에 있어 다양한 실험을 진행 중이다. 기존의 기사 형식을 떠나 인포그래픽, 동영상, 스토

레텔링 등을 활용한 다양한 뉴스들이 생산되고, SNS에서는 한 장씩 넘겨 볼 수 있는 카드 형식의 뉴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학교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보다 페이스북 '내나무 숲' 페이지 등이 더 인기 있다. 접근이 용이하고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또한 SNS가 입소문보다 파급 속도와 파급력이 더 크다. 격주로 발행하는 종이신문을 통해 학내 소식을 전하는 것, 어쩌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것이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존재했던 학보사 페이스북 계정들은 적극적으로 독자와 소통하고 새로운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애써야 했다. 기사가 많은 학보사는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서를 신설해 콘텐츠를 제공하기도 한다. 단순히 학보사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링크를 공유하는 것이 아닌, SNS 게시 전용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콘텐츠만 제작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독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학내 공지사항을 전달하기도 한다. 하지만 독자들이 뉴스 콘텐츠보다 이러한 '홍보용' 콘텐츠에 대한 반응만 높을 경우 달래기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비난을 맞이하게 된다. '이벤트 페이지나, '그 시간에 제대로 된 기사를 써라' 한성대 신문사 페이지의 구독자는 1,168명, 한성대 신문사 계정과 친구를 맺은 사람들은 약 삼천 명이다. 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만큼 이제는 콘텐츠에 힘써야 할 때이다. 종이신문에 가장 좋은 디지털 콘텐츠를 실어 종이신문에 실린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것, 이제 한성대 신문이 도전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 낙산만평

인태미(시각영상 2)



# 아주 사적인 시간 『컬러즈』의 김윤희 강사를 만나다

‘아주 사적인 시간은 인터뷰 대상 선정부터 컨택까지 기자의 개인적 취향과 사심이 가득 담긴 인터뷰 코너입니다.’  
(편집자주)

## “오직 나만의 색을 찾아서”



▲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컬러 카드.

언젠가부터 인터넷에 퍼스널컬러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옷 추천 글에도, 화장품 추천 글에도 퍼스널컬러 이야기는 꼭 들어갔다. ‘봄엔 새도우 추천’, ‘겨울콜이면 꼭 사야하는 립’, ‘이쯤 되니 기자는 퍼스널컬러가 궁금해졌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몇 가지 자기진단법이 나왔다. 그런데 자기진단을 해도 무슨 톤인지 알 수 없었다. 편집국장님께 물어봤다. ‘국장님, 전문 톤인가. 톤 톤인가?’ 국장님이 대답했다. ‘넌 그냥 누래’. 상처를 받은 기자는 퍼스널컬러 강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본인만의 베스트 컬러를 찾아주기로 유명한 컬러즈의 김윤희 강사를 만나 인터뷰를 했다.

### ‘퍼스널컬러’란 무엇인가?

퍼스널컬러는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나의 색을 의미합니다. 여성분들이라면 친구가 바른 립스틱의 색이 너무 예뻐서 내 입술에 발라보았는데 입술만 너무 뚱뚱 때 보여 실망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외모를 떠나서 누군가에게 유독 잘 어울리는 색이 있는데, 그 색을 퍼스널컬러라고 합니다. 자신의 퍼스널컬러를 알면

접이나 소개팅에서 자신의 매력을 더 어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퍼스널컬러’는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퍼스널 컬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따뜻한 느낌이 드는 옐로우 베이스 톤과 차가운 느낌이 드는 블루 베이스 톤으로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가면 계절별로 분류가 됩니다. 원색을 기준으로 흰색, 회색, 검정색 중 어떤 색을 타느냐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우선 원색과 흰색을 탄 생동감 넘치는 색을 봄색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회색을 타거나 검정색을 타서 색감이 깊어지게 되면 가을 톤이 되구요. 여름꽃은 원색에 흰색이나 회색을 탄 파스텔 계통의 색이나 흐린 색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색이나 검정색 같이 자연에서 보기 힘든 색을 겨울꽃이라 합니다.

### 톤이 계절 사이에 걸칠 수도 있나요?

톤이 계절 사이에 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마다 다른데요. 베이스가 중요한 사람이 있는 반면 톤이

중요한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저는 톤이 중요한 사람이라 톤이 같으면 계절 상관없이 그 톤의 색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겨울 다크톤이지만 가을 다크톤도 같이 써요. 가을 다크 톤이 베스트 컬러는 아니지만 쓸 수 있는 색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 강사님이 부러워하는 타인의 톤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톤인가요?

저는 색의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이 부러워요. 색을 쓰면 그 색이 튀어보이는 타입이라 쓸 수 있는 색이 별로 없거든요. 염색도 밝은 색으로 하고 싶는데 안 어울려서 못합니다. 색이 있는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 자신의 퍼스널컬러가 아닌 색상을 선택하면 무조건 미스매치인가요?

꼭 그렇다고 볼 순 없어요. 그건 컬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포인트만 주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걸치는 색상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베스트 색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쓸 수는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베스트 색상과 그렇지 않은 색상을 섞어서 사용하는 거죠.

### 내 컬러가 아닌 화장품을 활용할 방법은 없나요?

색을 섞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립스틱 같은 경우는 녹여서 다른 색과 섞어서 새로운 색을 만든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색도 같은 경우는 활용하기가 쉽습니다. 색도유는 다른 화장품과 달리 타거나 섞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죠. 쓰시려면 포인트만 준다가 아니라 반대로 연하게 보일라 말라 바르는 수밖에 없어요.

### 집에서 개인이 퍼스널컬러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꼭 ‘민낯’으로 하셔야 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옷과 립스틱 중에서 같은 명도에 있는 색으로 많이 입어보고 발라봐야 합니다. 썬 오렌지와 핫핑크처럼요. 마찬가지로 봄 라이트는 여름 라이트와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주변사람들의 눈이 더 정확하니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봐야 해요. 이때 노란 조명이나 지하철 거울 앞에서 평가받는 건 안됩니다. 노란 조명에서 보면 다 예뻐 보이거든요. 이렇게 조명과 환경에 따라 어울림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를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환경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 퍼스널컬러 진단이 강사님에 따라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미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이스 진단 자체는 크게 오차가 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체도나 톤으로 봤을 때 문제가 생기죠. 톤 업을 어느 정도 해야 예뻐나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예쁘게 고객님이 봤을 때 아닌 경우도 생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은 경우는 톤 업 된 얇은 피부를 원하다보니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해요. 그러면 저희는 고객님이 원하는 쪽의 차선책을 찾아줘야 합니다. 이렇다보니 강사에 따라 퍼스널컬러의 진단이 달라지는 거 같습니다.

### 강사님은 어떤 일을 계기로 퍼스널컬러 강사가 되기로 결심하셨나요?

저는 원래 디자인을 전공해서 색채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색채를 쓰는 메이크업에도 자연히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도 20살 때 메이크업 직종의 사람에게 직접 배워서 처음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미지 컨설팅 공부를 하다가 퍼스널컬러를 알게 됐죠. 그때 마침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에 중점을 맞추고 싶어져서 퍼스널컬러 강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 퍼스널컬러가 되기 위해선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치나요?

퍼스널컨설팅은 전문가 과정입니다.

다. 주로 컬러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나 퍼스널컬러를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요. 이 과정을 수료하고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강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관마다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자격증도 국가공인인 없고 민간자격증만 있는데 이 민간자격증도 협회나 사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 퍼스널컬러 강사가 되기 위해선 어떤 감각이 필요한가요?

어무래도 색을 보는 직업이다 보니 미적 감각이나 패션 트렌드를 보는 감각이 뛰어나면 유리하긴 해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색을 보는 감각입니다. 색이 따뜻한지 차가운지를 볼 줄 아는 감각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비슷한 색을 놓고 파랑과 노랑 중 어느 것이 많이 섞였는지 파악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 퍼스널컬러 강사만의 직업병도 있나요?

일상생활에서도 색을 볼 때마다 CMYK\*로 이게 C(파랑)가 몇이

고 Y(노랑)가 몇인지를 따지게 돼요. C가 많이 섞이면 톤이 Y가 많이 섞이면 톤이 더 밝아요. 직업병이긴 하지만 이렇게 따지다보면 색을 보는 감각도 생겨서 원인지 톤인지 알 수 없는 미묘한 색도 구별하게 됩니다.

### 마지막으로 아직 ‘자신의 색’을 찾지 못한 대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행에 너무 휩쓸리지 마세요. 그리고 주위에서 별로라고 하면 안 입게 되고 그 색을 사용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 주변사람들이 하는 말에 많이 귀기울여 보세요. 다양한 색도 많이 활용해보구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의 색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실명을 듣고 난 후, 기자는 자신의 톤이 더욱 궁금해졌다. ‘나만의 색’을 찾아서 좀 더 예뻐지고 싶었다. 결국 기자는 다른 강사들을 섭렵해 퍼스널컬러 진단을 받으러 가기로 결심했다. 강사님, 기다려요. 다음에는 손님으로 찾아 갈게요!

\*CMYK: CYAN(파랑)-MAGENTA(붉은 자주)-YELLOW(노랑)-BLACK(검정)의 약자로 인쇄에서 사용되는 색을 표시하는 모델이다. CMYK 각각의 비율을 조절해, 원하는 색을 인쇄할 수 있다.

김민정 기자 kmj@hansung.ac.kr



▲ 김윤희 강사가 드레이프 테스트 후 톤 진단을 하는 모습.

# 한성미식회

## 치즈님, 치킨! 치킨은 항상 옳다!



① '로소치킨'의 후라이드 치킨. 가격 8,000원



② '오거비어'의 맥반석 통닭. 가격 9,000원



③ '다비치'의 후라이드 치킨. 가격 6,500원

### ‘로소치킨’

지팡이 할아버지 치킨이 먹고 싶지만 한성대 근처에는 없다는 사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눈 감고 먹으면 치몰리에도 식별 불가능한 ‘로소치킨’이 있다. 지팡이 할아버지만의 비법을 그대로 담은 바삭한 튀김옷, 뜨거운 기름에서 인고의 시간을 거쳐 생성해낸 풍성한 육즙! 소금이나 양념이 필요 없는 짭짤한 속살과 마지막 느끼함을 가해주는 매콤함까지 모두 다 갖춘 너는 더럽... the love. “가족들도 극찬한 치킨”, “내 입맛엔 너무나 딱”, “생맥주가 생각나는 맛! 치맥에 가장 적합한 무난보스” 등의 평가. 가격 8,000원

### ‘오거비어’

동기들과 ‘치맥’하기로 했는데 개강 전 힘들게 뺀 살 요요로 돌아올까 걱정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북경요리도 맛을 내는 ‘오거비어’의 전기구가 통닭을 주문하라! 닭 껍질이 전기구이로 달으면서 만들어진 쫄면과 오일을 바르고 태닝을 한 듯 영계의 고운자태의 치킨, 짭조름한 껍질과 기름을 속 빼 담백한 속살. 닭고기를 다 먹어 섭취할 때쯤이면 안에서 나오는 찰진 찹쌀과 견과류들. “기름지지 않아서 손이 가는 맛”, “껍질만 먹으면 좀 짠 거 같다”, “닭이 너무 작아서 낭낭하지 못하지만 속안에 든 밥은 개이득” 등의 평가. 가격 9,000원

### ‘다비치’

치킨도 부고 유행 옛날 통닭의 그 맛 그 느낌 그대로! 어릴 적 아빠가 퇴근 길에 사와 아빠 품안에서 깨면 노란 봉투 속 정겨운 그 치킨. 하지만 우리세대는 바삭치킨세대라는 것이 합성. 군데군데 칼집이 있어 경쾌를 연상시키는 치킨. 물론 맛도 경쾌!! 얇고 바삭한 튀김옷과 골고루 바삭 익어 육포처럼 찢어지는 살결. 씹으면 씹을수록 느껴지는 고소함. “이건 맛있어서 무조건 1인 1닭 해야 하는 맛”, “너무 많이 익혀서 나온듯한 느낌”, “후라이드도 맛있지만 다비치킨은 역시 닭강정인 듯” 등의 평가. 가격 6,500원

# 과대망상

—국어국문과

글. 그림  
임태미(시각영상2)



# 착한 미소를 띤 악마, 화이트칼라 소시오패스

최근 들어 권력자들이 저지른 비인간적인 범죄에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공립교사 성추행 사건부터 이번 여름 전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인분교수 사건까지. 이렇게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권력형 범죄'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그들의 범행동기와 그들의 표적이 되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편집자주〉



“그는 열정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지난 여름 전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인분교수'에 대한 주 변의 평가이다. '인분교수'는 2년 동안 자신의 제자에게 갑급과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지난 7월 14일 경찰에 구속됐다. '인분교수'가 자신의 제자에게 인분을 먹인 가혹행 위는 가히 공포스러운 수준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평소에는 학생들을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전 문가들은 그런 그를 반사회적 인격 장에 중 하나인 '화이트칼라 소시오 패스'라고 진단했다. '화이트칼라 소 시오패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문직 종사자를 부르는 말이다.

###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여기 비슷한 특징을 가진 A와 B가 있다. A는 호남형인 외모를 가졌으며 예의 바르고 친절한 성격으로 주변사 람들의 평판이 좋았다. 게다가 자동차 석 대와 상가를 보유한 자산가이기도 했다. B는 굶은일도 열심히 하는 열정 적인 사람인 동시에 한 사립대학의 교수로 주변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왔

다. A와 B는 누구일까? A는 경기 서 남부 부녀자 연쇄살인범인 강호순이 고, B는 '인분교수'이다.

이 둘 모두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지 극히 정상적이며 웬만한 성격으로 주 변에서 좋은 평판을 받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 명은 자산가로 서, 다른 한 명은 대학교수로서 권력을 지녔다는 점도 서로 같다. 한 명은 연 쇠살인, 다른 한 명은 가혹행위를 저 질렀다는 점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로파일러가 이 두 사람에 대 해 내리는 진단은 다르다. 프로파일러 는 강호순을 '사이코패스'로, 인분교수 를 '소시오패스'로 진단한다. 어떤 점이 이 둘을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로 구분하는 것일까.

정답은 감정을 느끼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사이코패스는 감정을 느 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때 양심의 가책이나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핑계 를 만들어 범죄를 정당화하려 한다. 또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 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공감하지 못한다.

반면 소시오패스는 '사랑'과 '연민' 같은 감정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와 달 리 소시오패스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도 공감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소시오패스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종종 오해하곤 한다. 이 오 해는 소시오패스가 감정을 잘 드러내 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 려 하지 않는 모습에서 생긴다. 소시 오패스는 자신의 인위와 쾌락을 위해 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주저하지 않고 저지르기 때문이 다. 그래서 소시오패스는 극단적 이기 주의자라 불린다.

강호순과 인분교수는 이런 사이코 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전형적인 모습 을 잘 갖추고 있다. 강호순은 검거 이 후에도 담당 수사관에게 '증거가 있 으면 제시해보라'며 전혀 죄책감 없 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인분교수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아가 눈물 을 흘리며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뒤로는 3대 로펌 중 하나와 계약을 맺 는 이종성을 드러냈다.

### 권력을 가진 열등감 덩어리 '화이트 칼라 소시오패스'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부

족할 게 없는 사람'일 것이다. 돈과 명 예, 가진 것도 많은 그들은 왜 자신보 다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 지르는 것일까? '화이트칼라 소시오 패스'의 범행 동기는 놀랍게도 '자존 감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이와 관련 하여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권력과 지위를 제외하고 사람 자체만 보면 화이트칼라 소시오패스들은 작고 못 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본인들 스스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열등감을 사로잡혀있다 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 경우 선행을 통 해 인격 도야를 하는 방법으로 자존 감을 높이지만 '화이트칼라 소시오패 스'의 경우는 다르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얻은 우월감으로 자존감을 상 승시킨다. '화이트칼라 소시오패스'는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쉽 게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들은 그 능력을 자신의 주변 사람에 게 발휘한다. '인분교수' 같은 경우는 대학교수가 되고 싶어 자신을 낮 은 제자에게 그 능력을 사용했다. '대 학교수가 되고 싶다'는 갈망을 약점 으로 잡아 자신의 제자를 유린한 것 이다. 약점이 잡힌 제자는 무기력하게

교수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화이트 칼라 소시오패스'는 이렇게 자신에게 복종하는 사람을 보며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고 안심한다. '아, 나는 못한 인 간이 아니구나. 나는 잘났구나.' 그리 고 이 달콤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 구나라는 생각에 '화이트칼라 소시오 패스'에게 순종하게 된다. 이런 이유 로 범죄가 발각될 때까지 폭력이 계 속되어 간접적인 피해자와 가해자도 늘어나는 것이다.

그럼 '화이트칼라 소시오패스'에 의 해 범죄 타겟이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 물음에 배상훈 프로파일러 는 "갑자기 말고 단호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들은 '나 누군지 알지? 신고하면 내가 손해 일까, 내가 손해일까?'라는 식으로 피 해자들을 협박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 게 발휘한다. '인분교수' 같은 경우는 대학교수가 되고 싶어 자신을 낮 은 제자에게 그 능력을 사용했다. '대 학교수가 되고 싶다'는 갈망을 약점 으로 잡아 자신의 제자를 유린한 것 이다. 약점이 잡힌 제자는 무기력하게

족 언론의 도움을 받아 강하게 대응해 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범죄를 목 인하지 않는 사회가 형성되어 정의가 실현되면 자연스럽게 '화이트칼라 소 시오패스'가 저지르는 범죄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 대학교수 열 등 중 한 명은 화이트 칼라 소시오패스 일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우리주변에 생각보다 소시오패스가 많다"고 말하 며 "대학교수 열 명 중 한 명이 화이 트칼라 소시오패스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말은 우리가 자주 만나 는 전공교수나 아르바이트 사장이 화 이트칼라 소시오패스 일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보자. 작품이 인용되어 교수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것을 '교수님'이기 때문에 묵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르바이트에서 잘될 까봐'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눈 감아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항상 이들의 범법 행위를 예의주시해야 하 고 그 범죄가 지속되지 않도록 '신고' 를 통해 싸움을 잘라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김민정 기자 kmj@hansung.ac.kr

## 서원재교수의 락 킴

## 스포츠이벤트 관광을 생각한다

스포츠 관광은 여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늘날 관광산업에 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스포츠 경기를 보러 떠나 는 여행시장이다. 휴가지를 선택 할 때에도 경기 관람 여부가 중요 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국 여행 중 프리미어리그를 관람하거 나 혹은 강정호 선수의 활약을 보 기 위해 PNC 구장을 방문할 경우 스포츠이벤트 관광이라고 한다. 꼭 프로리그가 아니어도 된다. 올 림픽이나 아시아경기, 유니버시아 드 대회 혹은 슈퍼볼과 같은 메가 이벤트나 일회성 챔피언십 역시 마찬가지다.

스포츠이벤트는 투어리즘 전략 의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 혹은 북 미의 다른 지역에서 강정호 선수 의 경기를 보러 온 야구팬이라면, 경기 전 피츠버그의 클립하우스와 더그아웃, 배팅연습장, 그리고 파 이리츠 박물관을 반드시 들르고자 할 것이다. 물론 별도의 비용을 지 불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 관광은 본질적으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을 동반한 유희적 활동이므로, 지 역을 대표하는 먹거리와 놀거리,

역사·문화적 명소 방문과 같은 또 다른 여가활동으로 이어지게 마련 이다. 이처럼 명성 있는 프로스포 츠 이벤트는 지역의 관광산업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일개 프로팀의 효과가 이렇할진 대, 올림픽과 같은 메가 이벤트는 어떠한가? 국제 올림픽 위원회 (IOC)와 일부 기능주의 학자들은 이벤트 스폰서십과 미디어 스폰서 십을 통한 후원기업의 브랜딩 효 과를 언급한다. 기업이 속한 국가 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강조하기도 한 다.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개최국과 개최도시의 인지도와 브 랜드 가치 상승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이다. 하지만 이윤일 뿐 이다. 코카콜라의 지원을 받은 연 구들이 폴라의 무해함을 증명하려 고 애쓰는 상업적 연구풍토에서, 국가적 관심사인 올림픽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들에 의구심이 든 다. 빛바랜 수치일 뿐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우리로 서는 메가 이벤트의 순기능과 그 효과가 3년 후 대한민국에서 증명 되기를 바랄 것이다. 여차피 피할

수 없으니 나 또한 그러한 기대를 가져본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가 미래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대회 후 시설활 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겨울스포츠 마니아와 동호회를 위 한 생활체육 시설로, 혹은 국가대 표선수 훈련장으로서의 공익적 활 용까지 정도로는 미흡하다. 국가 적 차원에서 올림픽 유산이 지닌 상징성을 더한 글로벌 수익모델이 요구된다.

빛잔치가 된 허울 좋은 올림픽 대회가 많다. 대부분 올림픽 시설 조성과 유지비용으로 인한 사회적 제책 손실과 관련된다. 올림픽 시 설과 인프라 조성으로 15억여 달 러의 부채를 짴 데 30년이 걸린 1976년 몬트리올 겨울올림픽과 당 초 예상보다 2배가 넘는 개최비용 을 들여 치른 2004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그리고 재정위기에 돌 월 드립 개최에 이어 2016 리우 하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브라질 정부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와 국 민들의 저항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때문에 2022 겨울올 림픽 개최지 선정과정에서 유치신

청을 철회한 유럽의 여러 도시들 의 명성함이 돋보이기까지 한다.

우리는 서울 올림픽을 치러냈 다. 하지만 올림픽을 통해 국력과 이름을 알리려 했던 30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의 공익성, 상징성, 수익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 래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 안을 고민해야 한다. 막대한 자본 과 노력으로 조성된 올림픽 시설 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러 한 시설들을 어떻게 명성 있는 올 림픽 유산으로 브랜드화 공익과 수익을 동시에 창출할 것인가? 한 달간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피해처진 자연환경의 손실은 또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우리는 현재 일회성 올림픽을 위해 너무 많은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투자 대비 효익이 없는 또 다른 웃음거 리가 될까 염려스럽다. 올림픽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 서원재

을지대 스포츠아웃도어학과 교수



## 엎드려 자면 야한 꿈을 꾸다?



야한 꿈을 꾸는 사람들은 꿈에서 깨 면, '내가 욕구불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욕구불만 상태 가 되면 야한 꿈을 꾸기 쉽다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은 '욕구 불만'이 아닌 다른 이유로 야한 꿈을 꾸는 것 일수도 있다. 야한 꿈을 꾸는 이유이자 '방범'은 바로 '엎드려 자는 것'이다.

홍콩 수린 대학교의 켈빈 카이칭 유 박사팀이 재미난 연구를 했다. 630 명을 대상으로 잠자는 자세와 성적 (性的)인 생각과의 상관관계를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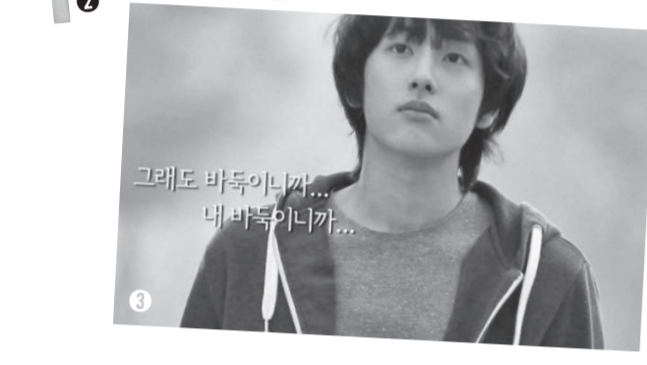
한 것이다. 그 결과 '엎드려 자는 사 람이 다른 자세로 자는 사람보다 야한 꿈을 꿀 확률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엎드려 자면 위와 폐가 압박되어 뇌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줄어드는데, 이는 대뇌 뇌파의 혼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긴 혼란은 야한 꿈을 꾸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럼 이렇게 야한 꿈을 꿀 때, 내 야한 꿈에는 누가 나올까? 이 궁금증은 캐나다의 몬트리올 대학의 심리학과 가 진행한 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

다. 이 연구팀은 여자 109명과 남자 64명을 대상으로 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야한 꿈을 꾸었을 때 남성 들은 대부분 상상 속의 여성이 나왔 고, 여성들은 현재 혹은 과거의 남자 친구나 연예인 같은 현실 속에 존재 하는 인물이 나오는 경향을 보였다. 또 남성의 경우 야한 꿈에서 자기중 심적인 경우가 많았던 데에 비해 여 자의 경우 타인 중심적 이거나 이타 적인 경우가 많았다.

김민정 기자 kmj@hansung.ac.kr



# 10분 안에 웹드라마

웹드라마는 10대~30대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 주로 학생이나 직장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특히 남자아이들이 등장하는 하이틴 로맨스가 강세이다. 이에 웹드라마박스 이준협 대표는 "기존의 드라마보다 부담이 적은 웹드라마를 선택해 연기에 도전하고, 제작자 입장에서라도 인지도 있는 아이들을 캐스팅하여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단순히 아이돌 팬들을 공략한 작품들은 에피소드 자체에는 신경 쓰지 못하는 등 허술한 기획으로 작품의 퀄리티가 낮았다. 이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성인들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유지되지 않고, 작품성 있는 프리미엄 웹드라마가 인기를 얻을 것"이라 예상했다.

한편, 저조한 매출, 화재성 확보의 어려움 등이 웹드라마의 한계로 지적되었다. 기획제작사의 작품인 '출출한 여자' 역시 콘텐츠 자체로 수익을 내기 어려웠다. 그러나 후속작인 '출출한 여자'와 흥풍편을 제작하거나, 책을 출판하는 식으로 동일 소재의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내보내면서 성공적인 수익을 거뒀다. 이처럼 성공을 거둔 원형 콘텐츠를 여러 상품 유형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원소스 멀티유즈(One-Source Multi-Use)'라 한다.

결국 웹드라마의 핵심은 잘 만든 콘텐츠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잘 짜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면 웹드라마 시장에 진입하기 딱 좋다. 본교는 올 2학기부터 웹드라마 제작 아카데미 1기를 모집해 두 달간의 강의를 진행한다. 수업을 맡게 된 이준협 대표는 "드라마의 첫 출발은 매력적인 이야기에서 시작된다"며 웹드라마는 이제 시작하는 분야로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순간의 스마트 폰 속, 빠져들 것 같은 이야기 한 편에 10분이 흘러가고 있다. 더욱 흥미로운 소재의 웹드라마들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해본다!

- 1. 남자 아이돌 EXO가 아이돌로 등장하는 웹드라마 '우리 옆집에 EXO가 산다'는 매화 천만뷰를 기록했다.
- 2. 웹드라마 '출출한 여자'는 이별의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30대 싱글녀 이야기를 다뤘다.
- 3. TV드라마로 인기를 끈 '미생'의 프리퀄 웹드라마 '미생 프리퀼'. 주인공들의 과거 이야기를 담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던 중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그 순간 TV의 코드가 뻗었다면? 더 우리에게 와 닿는 상황이 있다. 모바일로 보게 된 짧은 동영상 한 편. 겨우 3초 동안 타이틀을 봤을 뿐인데 갑자기 데이터가 끊어졌다. 그 즉시 찾게 되는 와이파이! 후자가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바로 '코드 커팅(Cord Cutting)' 시대가 왔다. 코드 커팅이란 말 그대로 케이블 TV의 코드를 끊지 않고도 인터넷, 모바일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짧은 시간 내에 문화를 소비하는 '스낵컬처'가 문화 산업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스낵컬처' 웹툰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한 당신! 이제 그 뒤를 이은 웹드라마에 주목할 때다.

웹드라마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드라마 형태로, 최근 네이버가 'TV캐스트'로 웹드라마 카테고리 만들면서 웹드라마의 시장이 열렸다. 현재 네이버 TV캐스트에서 46개의 웹드라마 작품을 제공하고 있다. 웹드라마는 한 회당 10분에서 20분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청하기 편리하다. 출퇴근이나 등하굣길에 보기 편리하지만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스토리를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빠른 전개와 쉬운 내용으로 제작된다. 기획제작사의 박관수 대표는 "보통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웹드라마를 시청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시청을 돕기 위한 장치를 시도해야 한다"며 "기획제작사에서 제작한 '출출한 여자', '모모살롱'에선 음악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작은 액정 화면을 고려해 피사체 크기가 크게 나오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나같이 무리생활 싫어하고 야심없는 반골기질 게으름뱅이 할랭이는 이런 세상에 뭐하러 태어났을까. 먹이피라미드의 밑바닥을 깔아주기 위해?

...우울해졌어...

먹는 존재 04 글

요즘 핫하다는 먹방 TV프로, 요리 만화, 드라마, 영화... 오늘은 뭘 먹을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냉장고 속 재료로만 만든 집밥이 차려진다. 별거 없는 재료로도 요리하는 모습이 섹시하다는 남자 셰프의 손만 닿으면 그럴싸한 메뉴가 탄생한다. 게으르고 빈둥거리는 기자는 저렇게 예쁜 그릇이 없어서 안 만드는 거라며 투덜댄다. 어디 요리를 하는 코너뿐일까. 혼자 사는 여성들을 공략한 싱글라이프 드라마에선 여자주인공이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깔끔한 집안에서 혼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걸로 풀는다. 나라면 분명 치킨을 배달했을 텐데! 먹기 위해 사는 것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나 보다.

요리만화라고 하면 주인공의 소소하고 행복한 먹방 라이프가 떠오르는데, 그 가운데서 레진코믹스 웹툰 '먹는 존재'가 눈에 띈다. 배고픔을 '질 낮은 양아치 새끼'라고 표현하는 여자주인공 유양. 이 개성 강한 여자가 너무 공명하다. 제멋대로인 성격에 입이 거친 유양이 안정적인 직장에서 벗어나면서 이

아기는 시작된다. 희식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권하는 상사 얼굴에 굴을 던져서 회사에서 잘리게 된 것이다. 긴 머지만 전혀 여성스럽지 않고, 입만 열면 욕이 튀어나오는 여자주인공이지만, 그녀가 내세우는 허세가 어색하지 밈지 않다. 'x같은 사회생활에 반기를 들고 뛰쳐나왔지만 당장 먹고 살 고민에 고뇌하는 모습은 솔직한 매력으로 다가온다.

'먹는 존재'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음식을 통해 풀어낸다. 음식은 소재일 뿐, 음식보다는 음식을 주제로 개성 있는 인물들의 냉소적이고 현실적인 시선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일상 속 친숙한 음식을 바라보는 캐릭터들의 대사는 음식의 맛과 이미지를 디테일하게 보여줘 흥미를 끈다. 거기에 유양의 상스러운 육설은 대리만족이 된다.

사회생활, 결혼, 육아, 여성차별, 학벌주의를 절묘하게 녹여내는 웹툰. 오늘날 어그업이 '질 낮은 양아치 새끼'같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먹고 살아간다.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 독자이벤트

독자이벤트는 한성대 신문을 구독하는 학우분들에게 연극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신문을 읽고 주관식 단답형 문제를 풀어주세요!

Q1. 사회 국가로부터 독립운동과 관련된 서훈을 받은 여성의 수는?  
Q2. 학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문직 종사자를 부르는 말은?

• 추천방법 •  
정답자에 한해 추천하여 연극 <말괄량이 길들이기>티켓(1인 2매)을 드립니다. 이름/학과/학년/연락처를 기재해 신문사로 방문하여 주세요.

# 기자의 취향대로 웹드라마 추천!



**1. 멈추지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내 기계심장이 망가진 날, 마고는 내 고장난 기계심장을 자기몸에 연결했다. 마고는 이제 내 심장이다. 옥 심쿵! 예고편을 본 순간 내 심장도 마고에게 빼앗겨 버렸다. 웹드라마에 이런 퀄리티의 SF가 나온다니. 인간과 로봇이 대립하는 시대, 연희는 로봇인 마고와 연결된 채로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을까.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는 김건 감독의 졸업 작품이지만, 개인적으로 3화라는 분량이 아쉽다. 함께 준비된 프리퀄 웹툰과 원화가 보는 재미를 더해준다.

**2. 후유증**  
교통사고로 갑자기 생긴 또 하나의 감각. 곧 죽는 사람은 창백한 피부에 빨간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능력을 갖게 된 고등학생 안대용이 사람들을 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만화 이야기 아니냐고? 웹툰을 원작으로 한 웹드라마기 때문. 거기에 아이돌까지 등장. 그런데 생각보다 빠.져.져.든다. 안대용의 눈에 비친 사람들.

**3. 취업전쟁 2**  
제목에서부터 벨이 딱 꽂히는 웹드라마 취업전쟁. 아니나 다를까 노랑진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취준생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 네 명의 이야기다. 서류를 100군데 지원해도 10개 불을락 말락 한다는 취준생 선배들의 말. 그런 취업 전쟁통, 뛰어들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 그렇지만 취준생들의 심정을 이렇게 잘 대변한 드라마도 없을 것이다.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포시러는 자와 꼬이지 않으려하자, 과연 승자는?

아~아! 난 다 꼬일 수 있어! 움하하하하~!!!!

대학로 관객 추천 대표 연극! ★★★★★

진격의 여심사냥 마초코메디!

뭐지? 뭐지? 이 남자... 재수없는데 너무 끌려...

openrun | 대학로 다르게놀자 소극장 | 연출 김대현 | 제작 KIMSCOMFUNKY | 협찬

희수요금 오후 8:00 | 토요일 오후 3:00, 6:00 | 일요일-공휴일 오후 2:00, 4:30

예매 | 인터파크 AUCTION | Gmarket | 112.com | 굿네이버스 | 인스타그램

# 이 광고를, 이번 수습기자모집을 주목하라!!!

- ※선발대상: 4학기 이상 활동가능한 재학생
- ※모집분야: 학내 뉴스 및 사회/문화/기획면 취재기자 및 사진기자
- ※활동기간: 입사후 4학기 동안
- ※신청방법: 지원서 작성 후 신문사로 제출 혹은 이메일로 제출  
(hansungnews@gmail.com)

매월 기자 활동비 지급 및 원고료 지급,  
임기완료 후 기자 인증서 발급,  
명함지급, 교내외 기자교육 참여

1차전형 서류지원  
9월 1일 화요일부터  
9월 20일 일요일 마감  
2차면접  
추후 개별 연락



## 한성대

# 신문사

## 제40.5기 수습기자모집

펜은 칼보다 강하다  
진정한 기자란 무엇인가!

※문의: 우촌관 옆 기업은행 맞은편 제1학생별관 2층

Tel.02-760-4186

한지선 편집국장 010-9075-3570